

담양 해동주조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픈... 8월 4일까지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 전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냥** 6월호

넓은 양조장 문화 웃을 입다

넓은 양조장의 변신이 흥미롭다.

2010년 문을 담은 담양 해동주조장이 복합문화공간 '해동문화예술촌'으로 변모한 현장은 새로운 문화공간의 탄생을 알리는 흥미로운 장소였다. 누룩창고 등 옛 공간은 전시실로 변신했고, 새로운 공간도 신축돼 아카이브실 등으로 활용됐다.

담양하면 떠오르는 죽녹원, 관방제림, 추월산, 메타세콰이어 길 등 생태 중심의 지역 이미지에 담빛예술창고에 이어 또 다른 근사한 문화공간이 문을 열면서 담양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이 더 늘어날 듯하다.

지난 1일 오픈식을 연 '해동문화예술촌'은 공간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해동주조장과 주류문화 아카이빙 전시와 '도시예술과 실험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복합 공간'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대규모 전시회가 어우러졌다. 5222㎡, 창고 10동, 주력 4동으로 이루어진 예술촌은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개관전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전을 통해 출발을 알린 후 9월, 카페와 어린이도서관 등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공식 오픈한다. 예술촌의 전체 구성과 운영은 (재)담양근문화재단(이사장 최형식 담양군수)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양조장 해동문화예술촌 예술감독이 맡는다.

◇주조장의 역사를 품은 공간

담양 구도심에 자리한 해동주조장은 1950년대 말 고(故)조인훈 대표가 '신공소주'를 인수해 현재 해동주조장 문간체에 영업을 시작하며 출발했다. 사업이 번창해 누룩창고, 가옥, 관리사, 농기구 창고 등 주조 관련 시설을 확대했고 1970년부터는 해동막걸리, 해동 동동주를 생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2010년 주조장은 폐업하고 만다.

주조장에 문화의 웃이 입히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부터다. 군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복원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했고 지난해까지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능성을 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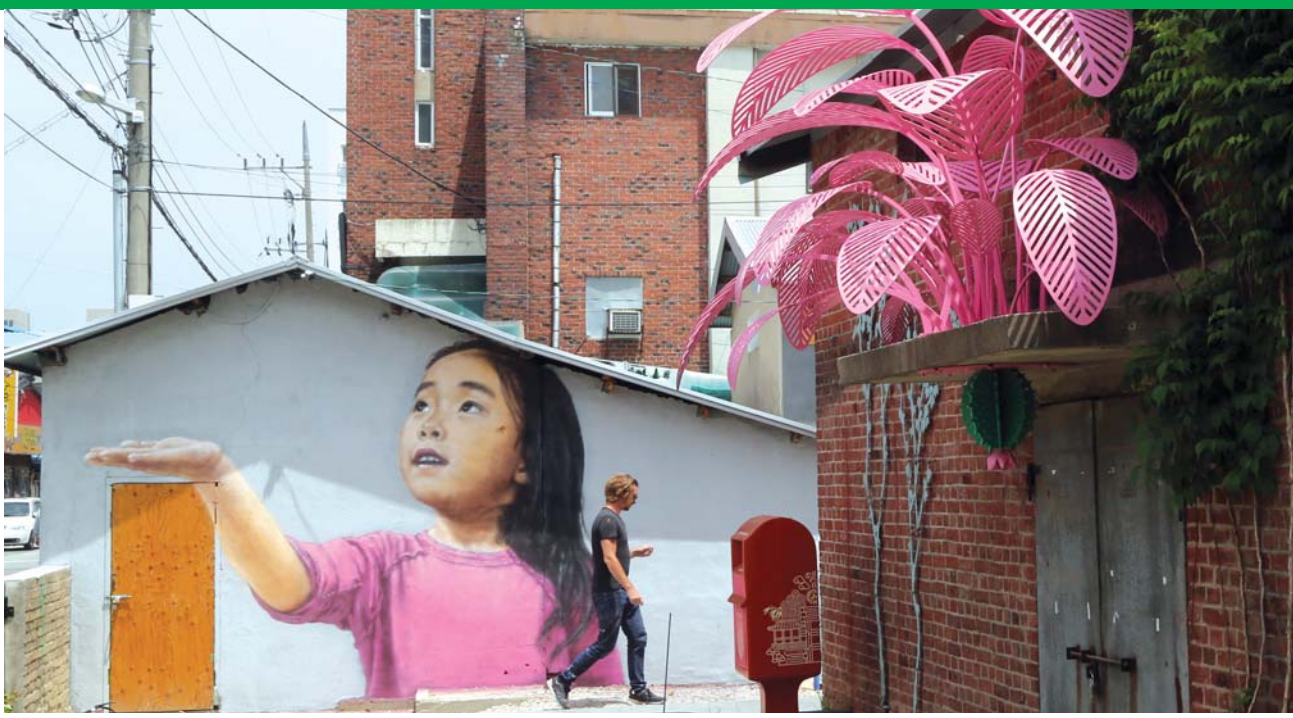
양조장 감독과 함께 둘러본 공간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공간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옛 누룩창고를 활용한 주류 아카이빙 공간은 흥미롭다. 나무로 열기설기 엮힌 천정이 오랜 세월을 그대로 대변해준다. 주조장 시설과 술 제조에 사용하던 물을 길던 우물 등도 그대로 활용했다. 다양한 술 이야기, 문학 속 술 이야기 등의 색선과 다양한 전국의 막걸리를 전시해 둔 공간도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막걸리 시음, 제조 체험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술을 빚던 공간과 자재를 보관하던 장소 등은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전시장에 창을 내뻗은 공간이 내다 보이는 게 인상적이며 본 전시장 사이의 너른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준다. 또 예술촌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대나무의 자는 담양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작품'처럼 보여 스트리트 퍼니처 역할도 한다.

그밖에 주인이 살았던 옛집 앞의 정원과 작은 연못도 눈에 띄며 입구에는 작은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다.

◇삶을 그리는 예술의 만남

양조장 감독이 기획한 국제전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전



오래된 양조장을 변모시킨 '해동문화예술촌'이 1일 문을 열었다. <위> 8월4일까지 열리는 기획전에서 만나는 스트리트 아트 작품과 실내 전시장 모습.

은 주조장이 노동의 장소이자, 일상의 장소였음을 인지하고 '삶의 터전과 함께하는 전시'를 지향하며 삶의 곳곳에 살아있는 예술의 현장을 보여주자 기획했다.

예술촌 입구부터 다양한 스트리트 아트가 눈에 띈다. 호기심에 가득찬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고,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도 눈에 띈다. 담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창고에는 배수민 작가의 설치 작품이 내걸렸다.

전시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 시간, 속도, 리듬', '자연과 환경, 탐욕과 물욕의 불야성',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경계 너머, 도시예술'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된 국내외 작가 23명이 참여했다. 김철아·김자아·송필용·인춘교·임현채·강동호·노여운·이재문 작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지알원, B-con, 세스, 제이스 작가 등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이 동참해 실내 전시장 뿐 아니라, 옛 주조장 창고와 담벼락 등을 모두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휴식'을 주제로 한 김자아 작가의 작품은 공간이 주는 매력을 심분 활용했다. 프랑스 작가 튀도의 작품은 화려한 나비 그림과 더불어 주조장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함께 배치해 눈길을 끈다.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상 나라' (6월22일, 7월13일, 7월27일)와 '영화가 사랑한 미술'을 주제로 한 인문학 브런치 모임 '카페 필로' (6월28일, 7월26일)를 운영한다.

해동문화예술촌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현재 주인이 사용하던 안채의 용도를 고민중이며 와인 등을 마실 수 있는 스탠드 바도 조성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도서관 '노리'도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주조장 앞 바로 앞의 한옥은 인문학당, 해외 작가 레지던시 등으로 활용되며 최근 매입한 교회 건물은 클래식 음악 공연, 영화 상영 등이 이어지는 '아레 아레 아' (가칭)로 조성한다.

조선대 사학과와 미술사학과를 거쳐 미술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프랑스 그르노블 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양조장 예술감독은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예술의 어우러진 문화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83-8246.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일상에 문화심표 찍어요

프랑스어 '마탱' (Matin-아침)에서 유래한 '마티네'는 음악회나 오페라, 연극 등의 낮 공연을 가리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도 저녁 공연이 아닌 브런치 콘서트나 런치 콘서트가 익숙해지고 있다. 가히 문화가 일상이 되는 시대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가 준비한 특집은 '시, 음악, 그림으로 일상에 문화심표 찍어요'다. 낮 시간에 부담 없이, 여유롭고 친숙하게 클래식 향연을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과 광주 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미술관, 여수 예술마루가 진행하는 '브런치'와 '런치' 프로그램으로 안내한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만화가 이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史官)이자 '이야기꾼' 박시백 화백이다. 그는 10년간 '조선왕조실록'을 새로운 시각에서 쓰는 대장정을 마친 데 이어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루는 '35년'을 그리고 있다. 그의 붓끝에서 독립 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고 강조하는 박 화백의 이야기를 전해듣는다.

여름이 시작된 6월, 전남도택리지는 노란 꽃달걀 출렁이는 '엘로우 시티' 장성으로 길을 떠난다. 붉은 꽃양귀비, 샛노란 금영화, 푸른 수레국화까지 다양한 꽃송이들이 황동강 5만평 일대를 물들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필암서원에서 선비문화·정신을 체험하고 장성호 수변길과 축령산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장성의 초여름 매력 속으로 들어가본다.

'위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에서는 제주의 핫 플레이스들을 소개한다. 제주가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삼다(三多)의 섬'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제주 한달 살기'가 인기를 끌면서 작가들의 '제주도행'이 늘어난 데다 문화관광 수요가 확산되면서 미술관, 서점, 공연장 등 문화공간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제주의 핫 플레이스들을 다녀왔다.

'라이프 스타일' 코너에서는 인테리어계의 '인쇄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탄공예를 소개한다. 등나무 줄기를 엮어만들어 등(藤)공예라고도 불리는 라탄공예는 최근 웰빙과 자연주의, 북유럽 인테리어가 대세가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담양 대나무공예 계승자이기도 한 이진영씨의 웨데이 클래스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소품 만들기에도 도전해 본다.

이외에 군 복무를 마치고 '핫 스타'로 복귀한 KIA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 선수, 고창 한국지역도서전 현장, 클럽트의 그림으로 매혹하는 빈 벨베데레공전, 하동 박경리문학관,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의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 도전하는 시니어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5·18교육관 강당
- 후 원 | (사)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 시꽃피다
- 구매 문의 | 시산책사 ☎ 02-764-8722



시집 『돌이라는 새』는 조선의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동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에게 삶은 대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꿨다.

- 권운(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



시인 조선의 ●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당신,반칙이야』, 『어쩌면쓰라릴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모든 빛을 소환하다』 출간